

세 번째 동리 신재효 자료총서 발간

고창군 판소리박물관, 신재효 선생 단가·가사·한시 영인교주본 2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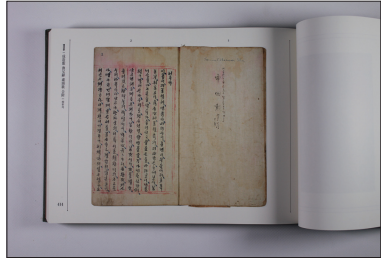
고창군 판소리박물관이 3번째 동리 신재효 자료총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신재효 선생의 판소리 단가·가사, 한시 등이 총정리되면서 고창 판소리와 동리 신재효 연구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리 신재효 자료총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리 신재효 선생(1812~1884)의 판소리 사설, 가사, 고문서, 유적·유물, 전기역사자료 등을 집대성해 책으로 엮고 있다.

영인본(원본을 사진으로 찍어서 복제한 책) 등 총 18권으로 계획돼 있으며 한국의 얼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수록될 예정이다.

발간 자료는 고창군과 (사)동리문화사업회(이사장 신유섭)와 함께 작업했다. 동리 신재효 자료총서 중 2020, 2021년에 발간한 '춘향가', '심청가', '토벌가', '박타령', '적벽가', '변강쇠가' 사설 영인본 6권에 이어 단가·가사, 한시 2권을 발간했다.

3번째 자료총서인 단가·가사 영인교주본에는 동리 신재효 사설인 가람본, 신씨가장본,



신재효자료총서(단가, 가사 영인교주본(본문))

성두본, 새터본, 고수본 등 10여종을 총망라해 영인자료와 영인자료를 활자화한 자료로 구분하여 제시해 출간했다.

또한, 한시 영인교주본은 동리가 쓴 한시 외에, 그의 동료들과 함께 쓰거나, 동리에게 준 한시 작품과 몇 편의 글을 엮은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작업은 각 필사본에 수록된 가사를 한 곳으로 모아 가사의 전모를 파악하고자 기획되었다.

따라서 단형 판소리나 전형적인 가사 작품,

단가 등을 모두 수록했다. 신재효의 작품이 수록된 자료는 신재효의 친필본, 이를 보고 베낀 등서본(謄書本)이 있는데, 현재 친필 원본은 그 소재를 알 수 없고, 등서본만이 남아 2022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받아 판소리박물관에서 보관 및 전시돼 있다.

등서본 중에 가사 작품이 수록된 책은 '성두본', '신씨가장본', '가람본', '새터본', '동리유집초(桐里遺集抄)', 1941년 성악화실에서 필사한 흥보가 권2, '김삼불본 신재효 판소리 사설', '옛노래, 옛사람들의 내면 풍경', '정계본'이다. 특히 단가·가사의 활자화한 자료중, '가람본' 수록 작품의 교주과정에서 다른 필사본에 중복되어 나타나는 작품과의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자료들을 포함해 조선후기 판소리 문화를 재가공하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소개하겠다"며 "판소리의 발전과 한국 판소리의 현대화 및 세계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덕유산국립공원, 청춘캠핑 버스킹 '가을로 가는 길' 버스커 모집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현교)는 오는 7일까지 제2회 청춘캠핑 버스킹 '가을로 넘어가는 길'에 참여할 버스커를 모집한다.

'청춘캠핑 버스킹'은 지난여름 야영장에서 처음으로 운영한 버스킹 공연이 성황리에 종료되며 큰 호응을 얻게 되자, 오는 가을 두 번째 버스킹 공연을 위해 유능한 지역 버스커를 모집하게 되었다.

이번 버스킹 공연은 '가을로 가는 길'을 주

제로 9월부터 공연할 예정이며, 주제와 적합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능한 개인 또는 팀 구분없이 참여할 수 있고, 공연에 참여하게 될 경우 소정의 공연비와 함께 덕유대 야영장 무료이용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덕유산국립공원 사무소(063-320-3833)로 하면 된다.

이상원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오랜 장마를 지나 성큼 다가온 가을을 맞



이하여 자연 속에서 소소한 위로와 행복을 드리고 싶어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며 "자연과 음악에 관심이 있는 예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문화예술회관, 창작뮤지컬 '단야 - 벽골제 사랑이야기' 공연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창작뮤지컬 '단야 - 벽골제 사랑이야기'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과 김제문화 알리기 공연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펼쳐진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인 벽골제의 설화를 주제로 하는 뮤지컬 공연으로 공연장 상주단체인 사드립필이 클래식 공연이 아닌 뮤지컬을 제작하여 선보인다.

관람권 판매는 오는 5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27일까지 '유물 구입' 공개 추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은 멸실 및 훼손될 우려가 있는 민간 소장 유물을 수집해, 국립박물관인 기념관의 전시 및 연구, 교육 등에 활용할 2023년도 유물 구입을 공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입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또는 한국 근대사와 관련된 고문서, 고서적, 삽화·사진 등의 유물은 물론,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 예술품과 같은 근현대 자료까지 포함한다.

매도 신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개인(중중 포함), 기관, 단체, 문화재 매매사업자 등이 수량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도굴품이나 도난품과 같은 '불법 유물'은 구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에 구입한 유물은 기념관에서 전시와 교육 등에 폭넓게 활용할 계획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는 소중한 자료로 삼아, 관람객들이 역사를 더욱 즐겁게 접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히며, 많은 소장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매도 희망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에 접속하여, 공고문에 안내된 '유물매도신청서' 등의 제출서류를 전자우편(amj1016@1894.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광고 콘텐츠 제작의 A to Z'

전북문화관광재단, 6일 전북지식살롱 최지훈 CD 강연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6일 오후 5시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1층에서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지사장 오충섭)와 공동으로 '전북지식살롱' 11회차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한국관광공사의 홍보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 시즌2를 총괄 제작한 최지훈 CD(Creative Director)가 '광고 콘텐츠 제작의 A to Z'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Feel the Rhythm of Korea' 시즌 2는 전통 민요와 현대 힙합을 결합시키는 등 각 지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매력적인 콘텐츠를 영상으로 만들어 2021년 '대한민국광고대상' 디지털영상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10개의 합작 음원을 합작 레이블과 협업하여 별도 제작하면서 각 영상별로 다양한 팔색조 매력을 K-힙합으로 표현했다.

그 중 가장 화제가 된 서산 머드맥스는 민요 '옹헤야'를 힙합으로 재해석해 배경음악으로 사용했다.

영상에 현지 어촌민을 직접 등장시키고, 바지락과 육쪽마늘로 만든 해골, 갯벌 위를 달리는 경운기, 호미로 바지락 캐는 모습 등 한국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줌과 동시에 지역 특성을 살린 컨셉으로 큰 호평을 받았다.

한편 최지훈 CD는 이번 강연에서 광고 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하는 일, 한편의 광고가 만들어지기까지 거치는 과정



에 대해 이야기 하고, 완성도 높은 콘텐츠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광고 콘텐츠 제작 및 로컬 브랜딩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은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https://naver.me/FYCKZQZF>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063-230-4216)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 대표 관광기념품 추가 발굴

전북문화관광재단, '관광기념품 100선' 13개 추가상품 공모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10월 6일까지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추가상품 13개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관광기념품 100선 선정 상품 중 휴·패업 등의 사유로 100선 해제에 따른 추가공모로, 총 13개의 상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은 전북을 대표하는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고 상품화 지원을 통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전북여행의 추억을 선물하고자 2015년부터 매년 25개 상품을 선정해 총 100개 상품을 구성했다.

응모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도내 6개월 이상 되어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로, 응모대상은 전북의 역사와 문화, 자연 등을 주제로 한 민·공예

품, 공신품, 가공식품 등의 관광객이 구매할 수 있는 모든 관광기념품이다.

1차 전문가 심의심사와 2차 현장심사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상품은 인증마크 부여, 생산장려금 지원(각 200만원), 관광기념품 100선 판매관 입점을 통한 판매와 홍보가 지원된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북을 대표하고 국내외 관광객에게 전북여행의 추억을 담아갈수 있는 관광기념품이 발굴되길 기대한다"며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https://www.jct.or.kr>) 사업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전화(063-230-7470)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종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종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